



기업경영분석개론 - I. 회계정보와 의사결정



김종열
jrykim@gmail.com

중앙대학교 경영학 학사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정보경영학 박사
(현) (주)에스엠비경영연구원 대표이사
(현)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현) KC코트렐(주) 상임감사

1. 회계정보의 활용을 위한 기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거론되는 “재무제표”라는 용어가 우리들의 귀에는 너무도 친숙하게 들린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무엇인지를 대충 알고 나서 막상 이를 접하고 보면, 하나의 보고서와 같은 큰 서류몽치에 그만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류몽치가 도표와 숫자 위주로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작성된 자료의 구체적인 의미나 데이터의 정확성보다는 이를 통해 자신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이해해 낸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와 같은 선입견과 심리적 부담감 때문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계분야에 관계하는 사람들만이 재무제표를 보아왔고 또 그들만이 이를 활용한 기업의 경영정보와 재무상태를 분석·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하여 왔다.

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이면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경영 지표나 경영상황에 대한 최종보고서, 즉 재무제표를 보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관리자 또한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보면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재무정보 자료를 볼 줄 모르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재무제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높아져 가고 있고, 이를 유용한 정보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무분석 영역에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많이 달라진 하나의 큰 변화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중간관리자 등 기업 내부의 범위를 벗어나서 금융기관의 여신담당자, 증권사의 투자분석가, 투신사의 투자심사 및 조사분석 담당자 등과 같은 금융이나 증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그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인들도 자신이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취득에 있어서도 재무정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기업의 투자가치에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투자 현실에 비추어 재무정보의 활용은 더욱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주주의 경우라면 출자한 기업의 영업성적이나 재무상황 등에 대해 궁금증이 대단하기 때문에 유·무상증자가 가능한지, 배당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관계사 또는 관련회사와의 출자관계는 어떠한지 등 기업운용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제표에 대한 인식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재무제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경영자, 사원, 주주, 금융기관, 국가기관 등에게 필요



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이며, 의사결정이나 투자결정을 위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재무제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과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투명한 경영의 실현인 동시에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발전에도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1.1 재무제표는 이렇게 중요하다.

재무제표란 기업의 생체기록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이란 도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기업은 하나의 무체생물(無體生物)이며, 용어상으로는 법인(法人)이라 하여 법률상 사람과 같은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다. 그래서 기업은 영속성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며, 그 본래의 목적인 영리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주주나 투자자들로부터 그 생존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 받아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은 자본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또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은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주주의 경우도 일정한 범위 내에 출자한 회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경영상태는 양호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고, 투자자의 경우라면 정말 자본 투자를 할 만한 우량 기업인지, 투자의 판단 척도라 할 수 있는 해당기업의 수익성이나 안정성, 성장성 등이 좋은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경영자나 종업원, 노동조합 등과 같은 기업 내부의 관계자들도 회사가 매출에 따른 수익을 내고 있는지, 생산설비의 증설이나 신규사업에 투자해도 괜찮은지,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등을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경영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임금의 증액 요구나 복리후생이나 근로조건의 개선 또한 같은 맥락에서 검토 되어진다.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나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제휴, 신규거래, 납품이나 수주관계 등에 있어서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 또한 그 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원관리를 위한 일선 세무서 역시 세법에 규정된 각종 신고서류와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정부기관도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재무상태를 위해 각종 법규와 제도를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을 둘러싼 내·외부적인 관계자들에게 신뢰의 눈과 우호적인 투자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재무제표이다. 흔히들 『기업 종합 경영성적표』에 비유되는 이 자료는 작성하는 기업이나 이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되며, 이를 통해서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를 보고 이해하는 안목 또한 같은 의미를 지닌다.

결국 재무제표는 X-ray에 비친 기업의 투명한 본래의 모습과 같은 것이며, 이는 기업자체의 신뢰성 확보나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가 되는 것이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상환능력의 정도,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투자가치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주주에게는 성과에 대한 배분이나 현재의 기업 상태와 향후의 발전 가능성, 정부기관에는 기업정책 방향이나 세원자료 및 과세형평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2 재무정보는 이런 사람이 이용한다.

기업과 관련된 재무정보 이용자는 내부이용자와 외부이용자로 구분된다. 내부이용자는 경영자 집단을 지칭하며 외부이용자 집단은 경영자 이외의



다른 모든 이해관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투자자, 채권자, 공급업자, 세무당국, 종업원, 고객, 지역 주민, 재무분석가, 노동조합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하에서 이들이 각각 재무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한다.

- ① 경영자 : 경영자는 기업을 총체적으로 꾸려 나가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자인 동시에 그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모든 의사결정에 재무정보를 필수적으로 활용하며, 그 대표적인 사항만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주주(투자자)에게 얼마를 배당할 것인가.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얼마만큼 어떤 조건으로 조달할 것인가.
 - 계획 중인 신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연기 또는 축소, 포기할 것인가.
 - 기업의 M&A(매수·합병)에 참여할 것인가 등.
- ② 투자자 :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그러나 오늘날 투자자의 대부분은 기업경영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투자자는 전문경영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는가 또는 전문경영자의 급여 및 보너스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데 재무정보를 활용한다.
- ③ 채권자 : 기업에 어떤 조건으로 추가신용을 제공할 것인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회수할 것인가 아니면 만기를 연장해 줄 것인가 등의 의사결정에 재무정보를 활용한다.
- ④ 공급(납품)업자 : 공급(납품) 중인 물품, 서비스 등의 공급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현재의 공급조건 변경을 요구할 것인가 등의 의사결정에 재무정보를 활용한다.
- ⑤ 고객 : 거래기업이 적기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경영의 중단으로 사후의 서

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평가하는데 재무정보를 활용한다.

- ⑥ 종업원: 임금이나 복지수준을 협상하거나 또는 새로운 고용기회 등을 평가하는데 재무정보를 활용한다.
- ⑦ 세무당국 : 기업에 부과 및 징수할 각종 세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를 활용한다.

상기 이외에도 잠재적인 투자자, 채권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사채를 구입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재무정보를 활용하고, 지역주민은 기업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재무분석가는 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의뢰인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노동조합은 기업의 임금이나 복지정책 등을 평가하는데 재무정보를 활용한다.

1.3 재무정보의 기초지식을 이해하자.

(1) 재무제표가 의미하는 것.

재무제표라는 말은 우리들의 귀에는 익숙해 있는 용어이다. 하지만 막상 재무제표가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쉽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단지 재무제표는 “회사 재정에 관련된 서류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벌써 재무제표라는 것에 대해 절반 이상은 알고 있는 것과 같다.

재무제표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재무제표(財務諸表)는 기업의 재정(살림살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은 문서이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넓은 의미로 회사 재정에 관한 서류이며, 이러한 재정 관련 사무를 위해 작성하는 모든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또한 흔히들 한 해를 마감하며 그 동안의 사업 활동 내역을 연말 즈음에 작성하는 결산 서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도 있다.

여기서 결산이라는 말은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 활동이나 업적을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일로 이해하면 된다.

결국 재무제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성과와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회사의 재정상황을 한 눈에 보기 쉽게 나타낸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는 동태적(動態的)인 개념과 “특정한 시점”이라는 정태적(靜態的)인 개념이다. 이 두 가지의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후에서 점차 이해되리라 생각한다.

(2) 사업연도를 이해하자

재무제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작성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결산을 분기결산(分期決算), 반기결산(半期決算), 그리고 연간결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식으로 회계연도(會計年度), 즉 각 사업연도(事業年度)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3월, 6월, 9월, 12월 등으로 결산기(決算期)를 정하고 있다. 결산기는 기업의 업무마감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결산기를 정하는 것은 기업 고유의 권한이다. 그런데 보통 12월을 결산기로 알고 있는데, 이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해의 업무를 마감하는 기업이 많아 “12월=결산기=연말”이라는 시기적 느낌과 용어가 결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정한 결산기를 정하고 그 익월부터 다음해 그 당월까지의 기간이 한 회계기간 또는 한 사업연도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정관을 보면, “제 xx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회사의

사업연도(또는 회계연도)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로서 이 기간 동안의 사업 활동을 모두 정리하여 재무제표로 작성·보고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경우에 마감일이 12월 31일이라 통상 12월 결산 법인이라 부르고 있으며, 3월 결산법인의 경우라면 전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정하고 있는 기업을 부르는 말이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 결산기를 「제xx기」라고 표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의 사업연도에 대한 반복적인 기간 횟수를 의미한다. 즉, 기업의 연혁이나 나이와 같은 의미이다.

예를 들어 작년 2월 27일에 법인이 설립(12월 결산법인으로 가정)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면 작년 2월 27일 ~ 12월 31일까지가 제1기에 해당되고, 올해 1월 1일 ~ 12월 31일까지가 제2기에 해당된다.

(3) 재무제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 되고 있는 “재무제표”는 단순히 재무내용이 기재된 하나의 서식명칭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보고서류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무제표는 기업의 한 사업연도(통상 1년) 동안의 경영활동 내역 및 특정한 시점(결산일)의 기업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상으로는 재무상태표¹⁾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모두 합쳐 재무제표라 부른다.

이렇게 구성되는 재무제표는 기업의 사업특성에 따라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회계관리에 관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서(이전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회사는 상장기업이나 코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상의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로, 대차대조일은 보고기간종료일로 그 용어가 변경되었음.



스탁 등록기업, 장외등록기업, 자산 60억원 이상의 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상법이나 세법상에도 재무제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용어상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맥락이며, 그 각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5) 재무제표를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이 필요하다.

기업이 경영현황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이 자료를 기초로 한 보고서를 재무제표라는 형식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 준다고 하여도 그것이 기업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업종별로 또는 규모별로 기업 상호간의 재무적인 비교는 물론이고,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동일한 경영성과를 내고도 기업의 임의적 조작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성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해 관계자가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에 대한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이란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통적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제정한 것”을 말한다.

이는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장부에 적용하는 용어나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라는 회사가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갑’은 이를 정률법으로 평가하고 ‘을’은 정액법으로 평가하였다면, 두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해당 계정의 금액은 동일한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그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회계처리나 평가의 차이로 인한 성과판단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통된 용어와 인정 가능한 회계처리 방법 등을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고, 또한 기업이 선택한 회계처리방법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의 법률규정이라 할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기업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보편적인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작성보고에 따른 서식이 필요한 것이고, 작성된 보고서를 제대로

<표 1> 기준별 재무제표의 구성 비교

기업회계기준서 상의 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상에는 통상 “재무제표”라고 부르며 ①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상의 재무제표
상법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는 “영업보고서”를 말하며, 이는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 제출梳理 위한 서류로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법인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④ 영업보고서
법인세법상의 재무제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재무제표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의미하는데, 이는 세무신고 및 보고를 위한 서류로서 기업회계기준서에 준거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계산한 자기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의 신고서에 첨부할 서식 및 부수적·필수적으로 작성케 되는 일련의 각종 조정명세서로서, 법인기업이면 모두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④ 소득금액조정명세서 ⑤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 ⑥ 부속명세서



이용하기 위해 통일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일정한 해석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 재무제표의 작성에는 원칙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처리 및 보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하는 원칙을 정해 놓고 그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신뢰성의 원칙 :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즉, 신뢰성은 증거와 자료의 개관성과 회계처리의 공정성(단일성)이 유지되어야 회계처리와 보고의 신뢰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 ② 명료성의 원칙 :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즉, 회계정보의 공개성과 보고 원칙상 명료성의 원칙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이 필요하다.
- ③ 충분성의 원칙 :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 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공시하여야 한다.
- ④ 계속성의 원칙 :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속성의 원칙은 경영자의 자의에 의한 임의적 조작을 방지하고, 기업실체의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시되는 원칙이다.
- ⑤ 중요성의 원칙 :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
- ⑥ 안정성의 원칙 : 회계처리 과정에서 둘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보수주의적 회계처리를 규정한 것

으로 재고자산의 저가평가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 ⑦ 실질우선의 원칙 :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⑧ 회계 관습의 존중 :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서 업종별 관행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

2. 투자 의사 결정 가상 사례

2.1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

서울 구로동에 김상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는 혈혈단신으로 상경하여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구로공단에 있는 모 기업에서 중견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상수에게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자식이 없는 친척으로부터 생각하지도 않은 거액의 유산을 상속 받게 된 것이다. 상속에 관한 이야기는 본 교재의 본론 밖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갑자기 거액의 자금이 생긴 김상수의 투자고민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정리한다.

사실 상수는 재산증식이나 재테크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다. 본인은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졸업 후의 직장 또한 공장의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는 터라 투자나 재테크에 관한 사항에는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자기 들어온 현금 등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상수는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본인의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기로 결심한다.

투자상담 전문 컨설팅회사의 전문 컨설턴트가 상수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리는 결론이다. 즉, 상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 그 하나는 이 시점 이후의 소비를 위해



그 돈을 안전한 금융기관 등에 저축하여 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당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돈을 소비만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현재의 만족을 위해 현재 가진 것만큼 지출함을 의미하며, 투자하는 것은 장래의 더 큰 만족을 위해 기대하는 곳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 즉, 미래의 더 많은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것이다.

상수의 반응을 살피면서 컨설턴트는 진지한 마음으로 설명한다. 투자의 예로서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골동품이나 미술품에 대한 투자도 있음을 설명한다. 이상과 같은 대안에 투자할 경우 성공에 대한 기대도 클 수 있지만, 실패 위험도 그만큼 있다는 사실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 하면서 결정은 어디까지나 상수가 내려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한다.

상수는 머리가 아팠다. 경제의 원리에 대한 상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머리로 자기의 책임 하에 결정을 내린다면 아마 상수는 감내해낼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상수는 가장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즉, 머리 아프게 골몰하지 않고 은행에 정기예금 하여 두기로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수의 이 소식을 들은 한 친구가 벤처기업의 경영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소개하였다. 그 경영자는 상수에게 재미있는 제안을 하였다.

자신은 IMT2000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기기의 중요한 부품을 연구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회사는 설립한지 2년 정도 되었고, 그 동안 연구·개발에 몰입한 결과 이 분야에서는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는 장래가 기대되는 유망한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향후의 회사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하여 설명한 후 상수의 투자를 요청하였다.

- IMT2000 관련하여 정보통신기기의 핵심 부

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 전년 말 현재 회사의 자산총액은 약 25억 원 정도이고, 전년 매출액 또한 35억 원 수준으로서 전년대비 신장하고 있다.
- 최근 2년간의 연평균 순이익은 4억 원 정도로 매출액 대비 12%를 상회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배당도 실시하고 있다.
- 정부의 IMT2000 프로젝트가 완결되어 실용화 단계에 들어선 현 시점에 수요의 폭주로 생산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현재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진행 중인데 회사의 보유자금으로 충당하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부족한 실정이다.
- 향후 수 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을 계획하고 있고, 또 현재 회사의 경영성적도 양호한 상태이므로 투자하여 준다면 상당한 이득을 되돌려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과 함께 상수에게 20억원 정도의 투자를 요청하였다.

상수는 경영자의 말만 듣고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경영자가 설명하는 사업현황과 그 계획 또한 듣기는 하여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상수는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고민하면 해결을 위한 방안도 생각나기 마련이다. 얼마 전 투자를 위한 상담을 하였던 컨설턴트가 생각났다. 아마도 그분이 워낙 진솔하게 상담에 응해 주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상수는 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자 나름대로는 머릿속에서 그 방책을 그려 보고 있었으나 정작 본인이 컨설턴트에게 말해 줄 투자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나지를 않았다.

아마도 그 분야에는 비전문가인데다가 구두로 전해들은 이야기를 충분히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상수는 경영자에게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서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 문서



를 받아서 컨설턴트의 자문을 요청할 생각이었다.

며칠 후 이 회사 경영자는 회사의 재무담당자가 작성해 준 재무제표를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는 재무제표 상에 있는 수치도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재무제표 상의 수치만 놓고 보았을 때는 분명히 장래가 밝아 보였다. 그러나 이 회사 경영자의 설명이 어쩐지 미덥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재무제표 상에 그 어느 누구도 보증한다거나 증명한다는 내용도 없었다.

그래서 상수는 용기를 내서 이야기 한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누군가 확인해 주거나 검증해 주는 사람은 없느냐고, 그리고 공인회계사인지 뭔지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한 사람이 확인한 그런 재무제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서, 회사 외에 제3자가 확인한 그런 재무제표가 있으면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상수는 이 회사의 경영자에게 공인회계사의 독립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셈이다. 그러나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경비도 들어가고, 시간도 더 지체되는 일이지만 투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

황에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 ①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② 재무상태표
- ③ 손익계산서
- ④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⑤ 현금흐름표
- 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이상의 서류가 공인회계사가 보증하는 재무제표라고 생각하고 상수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투자를 위한 검토를 시작한다.

2.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먼저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작성된 재무제표는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우선은 마음이 놓였다. 왜냐하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 외부 감사인이 이 회사의 회계기록을 철저히

<표 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p>ABC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p> <p>본 감사인은 첨부된 ABC주식회사의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p> <p>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p> <p>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2008년 재무제표는 ABC주식회사의 2008년 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p>	<p>2009년 3월 xx일 에스엠비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김 호 돌</p>



검토하였다.

-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다.
- 동 재무제표 상에는 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수는 회계감사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이라는 것이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 또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는 경영자가 추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사실도 동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러한 발견으로 인해 상수의 마음은 다소간 염려스러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설령 공인회계사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경영자가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중 다음의 대목에 주의를 하고 있다,

-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 감사는 재무제표 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 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試査)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3 ABC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다음으로 상수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시된 2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재무제표에는 과거에 관한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약간은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즉, 제일 관심 사항인 이 회사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관련된 정보는 아무것도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회사가 상수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 만족스러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경영성과에 달려 있다. 과거는 대체로 미래에 대한 불충분한 지표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또한 상수는 각각의 재무제표가 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선 표 3의 내용대로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의 각 구성내용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 즉, 자산, 부채, 자본의 속성과 그 구성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자본은 소유주, 즉 주주의 지분으로서 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자본금)과 회사의 이익금 중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자금(이익잉여금)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2008년 기준으로(이하 동일함) 이 회사의 자본은 총14억 6,500만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자본금 8억원과 이익잉여금 6억6,500만원의

<표 3> 재무상태표

과 목	2008년(천원)	2007년(천원)
자 산		
- 현금 및 현금등가물	165,000	145,000
- 매출채권	450,000	350,000
- 원재료	350,000	250,000
- 기계장치	600,000	600,000
(감가상각 누계 액)	(120,000)	(60,000)
- 토지	1,000,000	1,000,000
<<자산 총계>>	2,445,000	2,285,000
부 채		
- 매입채무	20,000	60,000
- 미지급비용	100,000	50,000
- 단기차입금	50,000	100,000
- 장기차입금	810,000	900,000
<부채 총계>	980,000	1,110,000
자 본		
- 보통주자본금	800,000	800,000
- 이익잉여금	665,000	375,000
<자본 총계>	1,465,000	1,175,000
<<부채와 자본 총계>>	2,445,000	2,285,000



로 구성되어 있다.

- ② 부채는 주주 이외의 제3자로부터 조달한 현금 및 현물로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빚이다. 따라서 이 회사의 부채는 총 9억 8천만 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그리고 장·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자산은 회사가 자본과 부채로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회사가 영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이 회사가 상기 ①, ②에 의해서 조달된 총 자금은 24억 4,500만원이다. 이 자금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형태는 현금및현금등가물(1억 6,500만원), 매출채권(4억 5,000만원), 원재료(3억 5,000만원), 기계장치(6억원) 및 토지(10억원)이다.

회사는 이러한 자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매출도 올리고 이익도 만들어낸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상기 ②의 부채도 갚고, 또 상기 ①의 주주에게 배당금도 지급한다.

표 4는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여주고 있다.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라는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수입금액(매출액) 35억원에서 비용으로는 제품매출원가(24억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5억원) 및 법인세비용(1억5,000만원)을 공제한 후 4억 5,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4> 손익계산서

과 목	2008년(천원)	2007년(천원)
수 입		
- 매출액	3,500,000	3,200,000
비 용		
- 제품매출원가	2,400,000	2,200,000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500,000	500,000
- 법인세비용	150,000	125,000
당기순이익	450,000	375,000

표 5는 회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여주고 있다.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 가능한 최대의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2억 1,500만원)과 당기순이익(4억 5,000만원)으로 합계 6억 6,500만원이다.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억 1,500만원은 전년도 이전의 이익금으로 전년도에 배당하고도 미배당상태로 남아 있는 금액이다.
- ② 당기순이익 4억 5,000만원은 금년 중에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이는 손익계산서 표 4 상의 당기순이익 금액이다.
- ③ 배당금 2억 4,000만원은 금년도에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다. 따라서 자본금 8억원에 대하여 30%의 배당이 이루어진 셈이다.
- ④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상기 ①과 ②를 합친 금액에서 ③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난 잔여분으로 다음연도의 당기순이익과 합산하여 배당을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표 6은 회사의 현금흐름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실제로 입·출금

<표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과 목	2008년(천원)	2007년(천원)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15,000	0
- 당기순이익(가산)	450,000	375,000
- 배당금(차감)	240,000	160,000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425,000	215,000

<표 6> 현금흐름표

과 목	2008년(천원)	2007년(천원)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0,000	(55,00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1,60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0,000)	1,800,000
현금의 증가(감소)	20,000	145,000
기초의 현금	145,000	0
기말의 현금	165,000	145,000



되는 현금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의 증감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표이다. 표 4의 손익계산서가 현금의 입·출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업상의 권리·의무를 기준으로 벌어들인 수입금액과 지출한 비용금액을 계산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손익계산서 상에는 매출액으로 수입에 계상되지만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외상매출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중요 활동인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활동이 현금의 증감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여 준다²⁾. 따라서 표 6을 기준으로 이 회사의 현금흐름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업활동(營業活動, operating activities)이란 기업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활동이다. 즉,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이다. 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 금액은 3억 2,000만원이다.

다음으로 투자활동(投資活動, investing activities)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시설 및 자산을 취

득하거나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이 회사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2008년 중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財務活動, financing activities)이란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와 관련된 활동이다.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익을 자본가에게 분배하는 행위와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차입된 자금을 상환하는 행위 등을 총칭하여 재무활동이라고 한다. 이 회사는 재무활동으로 인해 3억원의 현금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요약하면, 이 회사는 영업활동으로 현금 증가가 3억 2,0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현금 감소가 3억원, 이 둘을 합하면 기간 중 총 2,000만원의 현금증가가 일어난 셈이다. 따라서 표 6 상에서 2008년 중의 현금 증가가 2,0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으며, 이는 표 3의 재무상태표에서 2008년 말의 현금액(1억 6,500만원)이 2007년 말의 현금액(1억 4,500원) 보다 2,000만원 많은 것과 일치한다.

2.4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다음으로 상수는 재무제표에 관해 여러 가지 의

<표 7>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현금및현금등가물 : 현금및현금등가물에는 회사가 기말 현재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과 만기 3개월 미만의 예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2. 매출채권 : 매출채권 잔액은 회수 불가능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다.
3. 원재료 : 원재료는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직접 재료로 투입되는 것으로서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4. 기계장치 : 기계장치는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다. 또한, 신규 증설을 위해 취득 된 금액은 내용연수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산입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내용연수 10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5. 토지 : 토지는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다.
6. 유동부채 :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단기차입금 등 1년 이내의 단기성 채무로 구성되어 있다.
7. 고정부채 : 고정부채는 대부분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여음차입금이다.
8. 자본금 : 자본금은 전액 보통주 자본금이다.
9. 수익인식 : 매출수익은 제품이 출하될 때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다.

2) 기업의 활동별 현금흐름의 계산 원리는 “재무제표의 이해”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문 나는 사항들에 관해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표 7의 주석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주석에는 이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회계 과목에 대하여 계상하는 기준과, 금액의 평가방법 등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수는 주석의 내용을 통해서 이 회사의 특징적인 회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 고정자산은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하고 있다.
- 자본금은 전액 보통주자본금이다.

이상과 같은 검토 결과를 근거로, 상수는 이 회사가 투자하기에 적당한 투자 대상일 것이라는 생각을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무에 대한 지식이 전무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만 있었지 그 결과에는 자신이나 확신은 서지 않았다. 그래서 상수는 컨설턴트의 판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2.5 재무제표의 분석 및 의사결정

전문 컨설턴트는 ABC주식회사의 감사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상수에게 설명하여 이해 시켜 드려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명은 가능하겠으나 상수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해할지는 전적으로 상수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 컨설턴트는 다음과 같이 결심한다.

- 우선은 가장 쉬운 표현으로 재무제표가 무엇인가를 종류별로 설명한다.
- 다음은 재무제표별 내용을 짚어가면서 그 의미와 재무제표 상의 중요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 마지막으로 간단한 비율분석을 통하여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다.

(1) 재무제표란 무엇인가?

컨설턴트는 재무제표의 의미와 재무제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였다.

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재무상태표에는 회사의 자산, 부채, 그리고 주주의 지분인 자본의 내용이 각각 열거되어 있다.

자산에는 회사의 현금, 예금 등에 대한 잔액,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의 미회수분, 그리고 회사가 구입한 고정자산(기계장치, 토지 등)의 취득가격과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등이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부채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현재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금액이다. 이 중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것은 유동부채로 계상하고, 1년을 초과하는 장기인 부채는 고정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주주의 지분인 자본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다. 자본금은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가 출자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발생한 이익 중에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까지 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되고 있는 금액이다.

②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두 가지 구성요소, 즉 수입과 비용으로 구분된다. 수입은 판매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화폐금액이다. 그리고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판매와 관련해서 발생된 비용이다. 이 두 금액의 차이를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며, 이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특정 기간의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가 결정된다.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내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보여 주며, 이것을 처분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처분전이익잉여금에는 전년 이전에 달성하여 처



분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에 달성한 당기순이익이 포함된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먼저 더하고, 그 다음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차감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이익잉여금의 기말잔액이 계산되고, 이 잔액은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금액과 합쳐서 배당 등 그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④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의 현금이 어느 분야에서 증가하고 감소하였는지를 기업의 활동별로 구분하여 요약한 것이다. 즉, 영업활동·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초 현금잔액에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증가 또는 감소를 가감 조정하여 작성한다.

영업활동은 회사가 실제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것이며, 투자활동은 기계장치와 토지 같은 장기간 사용할 시설자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하는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재무활동은 회사의 자금조달 원천과 관련해서 현금이 수취되거나 지출되는 활동이며, 주주의 자본불입과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그리고 자금의 차입과 상환이 등이 그 예이다.

(2)재무제표의 예비분석

전문 컨설턴트는 재무제표 상의 용어와 재무제표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얼마나 튼튼해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는 맨 먼저 현금흐름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서 이 회사의 현금흐름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설명하였다(표 6 참조).

- 이 회사의 현금상태는 증가하고 있다.(2007년, 1억 4,500만원 → 2008년, 1억 6,500만원)
- 지난해에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3억 2,000만원의 현금증가가 있었다.
- 창업 이래 대폭적인 설비투자가 있었다.

(2007년, 16억원)

- 2008년에는 부채상환과 배당금 지급에 3억원이 사용되었다.

요약하면, 컨설턴트가 보기에 이 회사는 충분한 현금 창출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는 현금 창출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급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현금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는 그 다음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눈을 돌려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표 4, 표 5 참조).

- 지난 2년 동안 3억7,500만원과 4억5,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 지난 2년 동안 주주에게 각각 20%와 30%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이 회사가 수익력, 즉 성장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소유 주주들에게 상당한 투자수익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한다(표 3 참조).

- 이 회사의 총자산은 지난 2년간 22억 8,500만원에서 24억 4,5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 반면 부채는 11억 1,000만원에서 9억 8,0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이 회사의 장래가 밝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3) 재무비율 분석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재무적 강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율분석이 필요하다. 전문 컨설턴트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몇 가지 항목과 금액을 이용하여 재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보았다.

◇ 매출액 대 순이익 비율

- 2007년 매출액 32억원 순이익 3억 7,500만원 이익률 11.72%



- 2008년 매출액 35억원 순이익 4억 5,000만원 이익률 12.86% , 전년대비 증가

◇ 총자산 대 총부채 비율

- 2007년 총자산 22억 8,500만원 총부채 11억1,000만원 총자산대 총부채 비율 48.58%
- 2008년 총자산 24억 4,500만원 총부채 9억 8,000만원 총자산대 총부채비율 40.08%, 전년대비 감소

◇ 순이익 대 배당금 비율

- 2007년 순이익 3억 7,500만원 배당금 1억 6,000만원 배당률 42.67%
- 2008년 순이익 4억 5,000만원 배당금 2억 4,000만원 배당률 53.33%, 전년대비 증가

재무비율 분석의 결과는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률이 증가함으로써 개선되었고, 총자산에 대한 부채비율 또한 감소함으로써 개선되었으며, 배당성향을 나타내는 순이익 대비 배당비율 또한 대폭 증가함으로써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문 컨설턴트는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평균비율과 비교한 끝에 이 회사의 재무비율이 유사기업의 재무비율 보다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또한 설명하였다.

(4) 투자 의사 결정

상수는 컨설턴트로부터 장시간에 걸쳐 ABC주식회사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ABC주식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지분투자 요청에 응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이렇다. 우선, 회사가 제시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통해서 그는 ABC주식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양호한 지급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다음으로는 우수한 수익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배당성향 역시 시중 이자율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는가 하면 재무상태표 상에서의 자본구조도 나무랄 데가 없다는 컨설턴트의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KIPEC)